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마가 4:35-41 2020 년 6 월 7 일

김종성 목사

오늘은 우리교회 창립 64 주년 기념예배로 드리는 주일 입니다. 특별히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함께 드리는 에배로 64 주년 창립 예배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4 년간 주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혜를 감사히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건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 개월간 우리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비아러스는 우리들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비이러스는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바꾸어 놓았을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아픔과 여러움과 혼돈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주일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것이 오늘날의 현실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우리들의 사회는 인종차별의 문제로 혼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한 George Floyd 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노하고 경악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인종의 색갈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 장 28 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때에 우리들은 64 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복음서의 말씀 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저녁 때 사람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 반대 쪽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는지 배 뒤에서 잠을 자고 계셨고, 제자들이 배를 움직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 하며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야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들이 잘 아는대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였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며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났던 풍랑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릴리 바다의 경험과 지식과 이해로는 해결을 할수 없었던 그런 풍랑이였습니다. 그들의 상상과 이해를 초월하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랑였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였다고 생각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도 없었고 풍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분이였습니다. 그런 분에게 제자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삶속에서 풍랑을 만날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이해가 중여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이 중요 하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아무리 험한 풍랑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속에 나오는 배는 침몰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풍랑속에서 안전한 사람들이였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깨닳을수 있었을 것 입니다.

우리들이 한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서 삶의 풍랑에서 해방 될수는 없고 그 풍랑을 피해 갈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들은 삶의 풍랑을 능히 이기며 살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7 장에 보며는, 가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가 되고 어려움을 격게 됩니다. 276 명의 사람이 14 일이상 배에 타고 바다를 방황하며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드려워 하지 마십시요. 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 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나와 또한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을 무사히 항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으로 안심 하십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지난 64 년간 주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에 놓여져 잇는 우리들의 날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 "나에 대한 믿음으로 너희에게 닫아오는 삶의 풍랑을 이기고 나의 제자로 흔들림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64 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의 현실은 혼돈과 아픔과 어떠한 미래가 놓여져있는지 판단하기 힘든 그런 시기 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빛을 발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나가며 주님과 내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